

고령화사회와 병원경영



Contents

1. 고령화 시대의 도래
 2. 고령화 사회와 건강보험제정
 3. 고령화 사회와 병원경영
 4. 노인의료 대응방안
-

고령화시대의 도래

평균수명 연장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1950년 60세 이상의 인구는 2억1천4백만 명, 2000년에는 6 억명 정도로 전체인구 대비 노인층 인구비율은 10%에 도달함.

이는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체 노인 인구수가 무려 세 배나 늘어난 셈이다. 2050년에는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21%인 20억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도 1960년에 52.4세였으나 1970년에는 62.3세, 1980년에는 65.8세까지 증가했고, 1990년 이미 70.0세를 넘어 2011년 79.5세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시대의 도래(계속)

이렇게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자의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낮은 출산율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현재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임.

선진국들의 고령화 속도는 노령인구가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5년 정도 소요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진행속도가 선진국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불과 18년(2000-2018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2026년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행이 예상된다.

고령화시대의 도래(계속)

프랑스, 스웨덴, 미국 같은 서방국가에서는 인구의 고령화 과정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에 노인정책도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크게 볼 때 의료비의 준비와 노후의 준비로 나눌 수 있을 것임.

평균 수명이 길어질수록 의료비 증가는 당연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중에서 특히 노인 의료비는 매년 국민 전체 의료비보다 빠른 속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가장 대책이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고령화사회와 건강보험제정

노인 건강문제를 사회문제 요인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라 만성질환 노인이 증가 하게 되기 때문.

특히 고령노인의 건강약화는 본인을 포함하여 가족들에게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적 ‘삶의 질’ 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6.7%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질환을 한 가지 이상 갖고 있다.

그리고 전체노인의 35% 정도가 제3자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처럼 노인의 건강약화는 노화과정에서 올 수 있는 심신기능의 약화로 퇴행성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고,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높다.

고령화사회와 건강보험제정(계속)

따라서 심신기능의 장애로 주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간병·수발 등의 장기보호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노인세대는 일반 젊은 세대에 비하여 신체적 건강도가 떨어지고, 정신적 기능이나 노인성 질환의 이유로 유병율과 입원율이 높다.

따라서 만성질환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는 다른 세대에 비해 급증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비 지출에 따른 문제가 크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간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2배가 된다. 더욱이 노인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5.5%로, 총 진료비 증가율 16.6%에 비해 1.5배에 이르고 있다.

이는 노인 질환의 특성상 장기 치료를 요하는 만성질환을 1개 이상 갖고 있으므로 치료 기간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기간이 길고 여러 질환을 동시에 치료하는데 따른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고령화 사회와 병원경영

노인성 질병예방 및 조기발견

국내에는 노인에 흔한 질병 및 노인특유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 치료, 관리하는 급성 및 아급성 노인전문의료기관 및 전문인력은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및 대학병원이상의 병원에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병원에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병동단위로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신규 노인의료수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사회와 병원경영(계속)

고령화 사회와 IT기술

IT기술을 이용하면 집안에서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인력이 가정 방문을 하지 않고도,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건강상태의 이상 및 응급상황을 조기에 전달 할 수 있음.

또한 독거 고령자에게 각종 센서를 부착하여 이를 홈케어 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종류의 생체 신호들을 측정하고 이를 분석,처리한다면 독거노인들에게 유용한 건강관리 방법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임.

즉 IT기술을 홈케어(homecare)에 폭 넓게 적용한다면 의료비용절감과 노인들의 건강유지 및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므로 텔레메디신 (telemedicine) 기술을 이용한 홈케어 (homecare) 등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노인의료 대응방안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없이는 노인보건, 복지분야에 대한 국가의 재정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2010년 건강보험 급여비 약 43조 6281억 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진료비의 32.2%(14조 583억)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도 65세 이하 국민의 4.4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근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 상황에서 노인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증가하는 노인의료수요에 대비한 노인외래진료센터, 병원 내 장기요양병동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와 복지의 통합연계모형, 노인성 만성질환의 체계적인 관리 등 일련의 새로운 의료공급체계구축과 법제도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